

■ 주요 업무 사례 ■

근로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작성된 출퇴근부 및 시간외근무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·휴일·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

대학교의 독립 부서 팀장이었던 근로자가, 자신이 결재·확인권자로서 작성한 출퇴근부와 시간외근무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연장·휴일·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.

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, '시간외근무결과보고서상 신뢰할 수 없는 기재 내용이 많고, 업무 내용으로 기재된 사항이 연장근로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업무가 아니며,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전·후임자의 연장근로시간 보다 현저히 많다는 점들을 밝혀,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간외근로시간을 믿을 수 없다'고 주장하였습니다.

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,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.

[담당 변호사]



이광선 변호사



권영환 변호사



신혜주 변호사